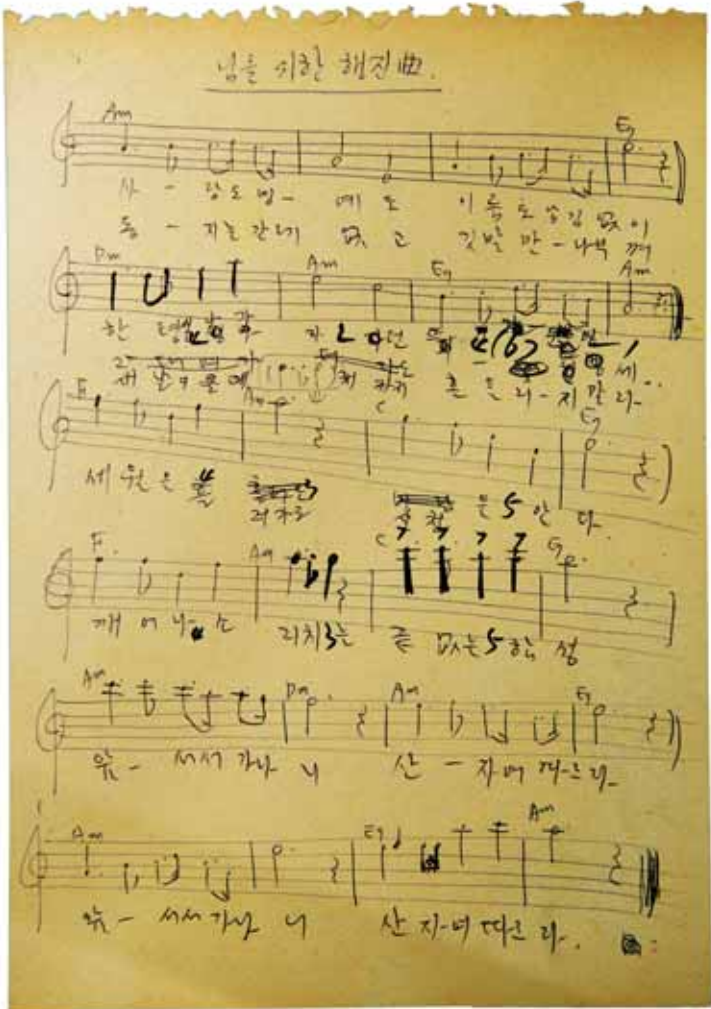


5·18 36주년

광주는 '임'을 부르고 싶다



'임을 위한 행진곡' 원곡 악보

내일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해야

- 국론 분열 시킨 건 정부 2
- 여·야·정 정국 급속 경색 3
- 보훈처엔 5·18, 4·19 없다 4



5·18 참배 후 광주 둘러보기 5
문화예술로 만나는 오월 17

보훈처 '임 행진곡' 제창 거부

靑 “국론 분열 막기 위한 조치”...野 “협치·통합 정신 짓밟았다”

2야 “박승춘 처장 해임안 발의”

제3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무산되면서 야당 반발 등 정국 마찰음이 커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회동 이후 화두로 떠올랐던 '협치(協治)'가 청와대와 국가보훈처의 고집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 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돼 5·18 정신의 전국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기대했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간 갈등만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처는 16일 '36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제창 불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창단이 부르면 따라 부를지 여부는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기 보다는 소관부처인 보훈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또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국론 통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의 이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에서 공정한 '협치' 기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추구안을 제20대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국회 해임추구결의안 공동발의 제안을 수락하며 "만일 5·18 기념식장에

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공동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지정곡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추구결의안의 공동발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협치를 다졌던 20대 국회의 시작이 냉각된 정국으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도 보훈처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 다시 한번 재고해줄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정치인 '5·18 광주' 총집결

오늘 전야제 20대 총선 당선인 대거 참석... '임 행진곡' 대응 주목

제3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정치권이 총집결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 "기념곡 지정은 어려워도 제창은 가능한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정부가 제창 거부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 야권의 20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집결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날 강력한 대정부 비판 메시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경쟁적으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보다 선명하고 강력한 대정부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더민주 원내대표단은 17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며 18일에는 당선인들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한다. 문재인 전 대표도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역시 17일부터 1박 2일 간 당선인 전원이 전북과 광주를 찾는 일정을 마련했다.
국민의당 당선인들은 17일 전북을 방문해 보육 등 민생정책에 대한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광주에 집결, 전야제에 합류한 뒤 18일에는 공식 기념식에 참석한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념식 행사 이후 전남 고흥 소록도로 들어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행사에 참석, 한센인들과 만날 예정이다.
야권 관계자는 "일단 지켜보겠지만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야권의 신뢰가 깨지면서 향후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

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놓고 정부와 야권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전개되면서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모처럼 조성됐던 '협치' 무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과 함께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창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민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어블어블 광주 청년의시

제51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 2016

시민페스티벌

사람

2016 Gwangju Citizen Festival

2016. 5. 21 (토) 시청 앞 광장 오전 11시 ~ 오후 5시

오전 11:00 ~ 오전 11:40	개막식	시민들과 함께 어는 시민페스티벌 개막식
오후 1:00 ~ 오후 4:00	열려라 시장실	1일 시장님이 되어 보세요! (시장실 개방 - 시청 3층)
	복록죽 시의회	1일 시의원이 되어 보세요! (복록죽 개방 - 시의회 5층)
오전 11:00 ~ 오후 5:00	시민포럼	시민들의 끼와 열정을 표현하는 시민 참여형 공연팀을 만나 보세요!
	시민카페 & 밥집	청소년, 청년, 여성, 시니어, 디문화, 장애인, 공장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시민카페 & 밥집에 놀러 오세요!
	시민갤러리	시민들이 직접 '사람'이라는 주제로 만들어 가는 공동작품에 참여주세요!
	시민책방	시를 쓰는 시민, 책을 읽는 시민, 헌 책도 기증하는 시민책방에 함께 해요!
	시민음악실	DJ와 함께하는 시민음악실, 음악과 사연 신청 받아요!
	시민버스킹	우리의 끼와 열정을 맘껏 펼치는 시간이에요!

책 나눔 캠페인
내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책을 기증해 주세요! 아름다운 가게 (장소: 시민책방)

책가방 기부
쓰지 않은 책가방을 아시라 친구들에게 책가방을 기부해 주세요! 재능기부 센터 (장소: 시민네트워킹센터)

5.21(토) 시청으로 놀러 오세요!!

www.gwangju-people.com T. 062-613-4180